



제8회

선교사 복지주일

2023년 11월 12일(주일)

| 현황 |

1.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2지역 81개국 733가정 1,29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. (2023년 9월 현재)

2. 선교사 복지주일 헌금은 2년에 한 번 받는 선교사 건강검진비용으로 사용됩니다. (1인당 건강검진 비용은 15만원)

3.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교사의 고혈압, 당뇨병, 간질환, 암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(현재 암투병 선교사 40여명)

| 참여방법 |

1. 선교사 복지주일(11월 12일) 예배에 교단파송선교사를 초청하시어 선교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2. 선교사 복지주일에 드려진 헌금을 선교국 후원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3. '사랑이음' 선교사후원프로젝트(개인 참여)를 통해 매월 정기 후원할 수 있습니다.

■ 후원계좌

우리은행 1005-403-138887
(재)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

■ 문의

선교행정부
문희인 목사(☎ 02-399-4343)



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